

[2013년 윤경SM포럼 조사]

# 윤리경영 5대 아젠다 선정

일시: 2013년 3월 28일(목)

발표: 김기찬 교수(가톨릭대)

# [윤리경영 5대 아젠다 선정] 어떻게 조사하게 되었나?

2013년 출범한 新정부는 신뢰받는 정부를 기반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구축하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정부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추구하는 만큼  
기업 스스로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자정노력의 의지와  
정부차원의 윤리경영환경 조성 및 도움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번 조사를 기획하였습니다.



# [윤리경영 5대 아젠다 선정]

## 대한민국 윤리경영 걸림돌은 무엇인가?

201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윤리경영 과제들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 해야 하는 윤리경영 과제는 무엇일까?

윤경SM포럼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생각하는 “윤리경영 5대 아젠다”와 윤리경영을 추진시 ‘손톱밑 가시’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윤경SM포럼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스스로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윤리경영 5대 아젠다 선정] 조사대상 및 방법은?

**첫째,** 윤경SM포럼 회원사(80개 법인회원사)윤리경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

**둘째,** 2013년 3월 진행(2주간)

**셋째,** 이메일 및 온라인을 통한 조사

**넷째,**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 행복지수 개발에 활용 예정



# 그 결과,

첫째, 경영진의 윤리의식 강화 22.8%

둘째, 직원을 배려하는 경영 20.6%

셋째, 사회적 책임 강화 19.1%

넷째, 협력사와의 상생경영 17.0%

다섯째, 선물, 금품 향응 문화 개선 14.8%

\*기타의견 (5.7%): 지배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개선 등

# [기업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구세 (製藥救世, 약을 만들어 세상을 구한다) 이념으로 책임을 다한다!]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 운영

- 대체재가 없는 필수 의약품이나 ‘돈 안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첨단 자동화 시설을 구축함
- “설령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의약품은 만들어야 한다”는 창업주의 경영이념에 따른 것임

## [비윤리적인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

### 회사의 피해근절은 물론 건전한 유통시장 형성을 위해 윤리의식을 재정립하려는 노력 강화

- 값싼 수입산 제품을 자사의 정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가공 및 유통업체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즉시 거래 중단과 기 계약된 주문에 대한 취소를 단행함
- 전 유통 고객사를 대상으로 위·변조 사례 교육과 재발방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서약을 진행하고 비윤리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 조항을 강화함
- 자사의 제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관계자들의 윤리 의식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국민행복지수]

##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기업현황 및 애로점을 조사 하여 국민행복지수 개발 예정

2013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 서민이 떳떳한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경SM포럼은 “윤리경영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 서민이 떳떳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여 윤리경영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민간 및 공공부문 조사(회원사 대상)를 통하여 개발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연 3회에 걸쳐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윤리경영 5대 저해요인]

## 대한민국 기업이 윤리경영 추진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첫째, 윤리경영제도와 기업관행 충돌	23.6%
둘째, 윤리성과에 따른 보상부족	21.4%
셋째, 경영진의 무관심	18.5%
넷째, 협력사와의 상생경영경기침체 및 영업성과 압박	16.3%
다섯째, 사내 윤리경영 인식부족	13.4%

\*기타의견 (68%): 거래결정시 윤리성과 미고려, 전문적 전담조직인력부족



#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 기업이 생각하는 “윤리경영 저해요소”를 해소해주세요!

**첫째,**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기존 기업관행에서 출발하는 윤리경영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둘째,** 윤리적 기업이 존경받는 우대받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영진이 바뀌어야 기업이 바뀝니다. 경영진 차원에서 윤리경영에 힘쓰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더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넷째,** 경기침체에 따라 의지가 있더라도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내 ‘윤리가 경쟁력이다’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의견: 공공조달시 윤리성과 미고려, 전문적 전담조직 인력 부족

# [향후 계획]

윤경SM포럼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지수 개발

- 아젠다 별 회원사 현황 조사
- 지수개발 및 회원사 정보제공
- 지수를 통한 개선방향 도출 및 회원사 공유

## 아젠다 별 가이드 마련

- 아젠다 별 회원사 참여
- 회원사 참여를 통한 애매한 기준에 대한 지침 및 베스트 프랙티스 개발

## 대정부 건의

- 행복지수 정책반영
- 행복지수 결과에 따른 포럼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

## 아젠다 별 사례 공유

- 아젠다 별 회원사 사례 공유 워크숍 및 교육(정기 워크숍)

# 함께한 회원사



# BEST Forum 윤경SM포럼

산업정책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가운데,  
윤리경영 이해관계자를 주축으로  
국내 윤리경영 확산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다자간 포럼인  
**윤경SM포럼**(BEST Forum: Business Ethics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for Top performance)을  
'03년 2월 19일(수)' 발족

대 상: 기업, 정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에 관심이 있는 법인, 중소기업 또는 개인  
대 표: 남승우 총괄사장(풀무원홀딩스), 조동성 교수(서울대학교)  
운영위원장: 김기찬 교수(가톨릭대학교)  
김태곤 전문위원(IPS 지속경영연구센터)  
간 사: 김재은 원장(산업정책연구원)  
사무국: 산업정책연구원(IPS)